

주일학교운동의 역사적 발전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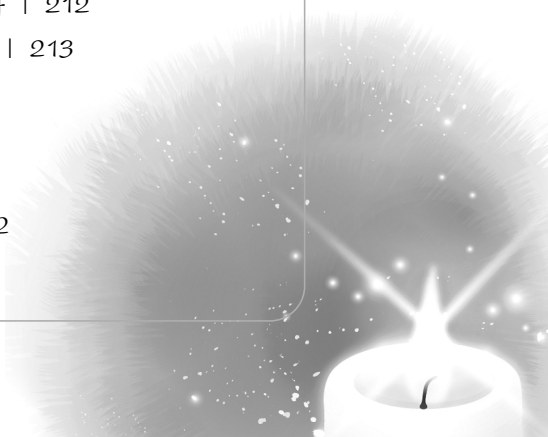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tasks of The Sunday School Movement

강용원*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198
- II. 영국에서의 주일학교 | 198
 - 1. 로버크 레익스 | 199
 - 2. 주일학교의 배경 | 200
 - 3. 주일학교교육의 목적과 내용 | 202
 - 4. 주일학교에 대한 반응과 성과 | 202
 - 5. 영국에서의 주일학교의 평가 | 204
- III. 미국에서의 주일학교 | 207
 - 1. 주일학교의 배경과 시작 | 207
 - 2. 주일학교와 주일학교연합회 | 208
 - 3. 주일학교의 성장과 침체 | 210
 - 4. 미국에서의 주일학교의 평가 | 212
- IV. 주일학교운동의 평가와 과제 | 213
 - 1. 파편화와 통합화 | 214
 - 2. 자발성과 전문성 | 215
 - 3. 폐쇄성과 개방성 | 220
 - 4. 주일학교의 명칭문제 | 222
- V. 나오는 말 | 225



주일학교운동의 역사적 발전과 과제

주일학교운동은 교회에서의 교육사역을 논함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주일학교의 출발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주일학교운동은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 1736-1811)로부터 시작된다는데 그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의 특징과 미국으로 건너간 주일학교의 성격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일학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오늘의 교회교육을 위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지는 과편화와 통합화, 자발성과 전문성, 폐쇄성과 개방성, 그리고 주일학교의 명칭 문제를 논의하였다.

* 강용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쥐리히 대학교 신학부에서 종교교육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Dr.theol.)를 받았다.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이며 신학대학장이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과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부회장이며, 총회교사대학의 학장으로 일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방법론』 등의 저서와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tasks of The Sunday School
Movement*

주요어

주일학교운동, 교회교육, 교회학교, 로버트 레익스

Abstrac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tasks of The Sunday School Movement

Prof. Dr. Yong-Won Kang

The Sunday School movement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discussion on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There are some different opinions on the beginning of Sunday School, but there is an agreement that Robert Raikes(1736-1811) is the founder of Sunday School movement that has continuously influenced the next generation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unday School in England and the character change of Sunday School in the United States. Also the researcher will discuss several tasks of the contemporary church education in terms of historical developments of Sunday School movement. In this part of the study, fragmentation and integration, volunteerism and professionalism, closed-ness and openness, and the name of Sunday School will be discussed.

Keywords | Sunday School movement, Church education, Church school, Robert Raikes

I. 들어가는 말

교회에서의 교육사역을 논함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주일학교운동(Sunday School Movement)을 들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주일학교의 원형을 구약에서부터 찾기도 하고, 주일학교와 유사한 학교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주일학교운동은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 1736-1811)로부터 시작된다는데 그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주일학교의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교회교육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교육사역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주일학교의 역사적 발전을 점검하고, 교회교육사역과 교육목회를 위해서 제기하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영국에서의 주일학교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 시작된 영국에서의 주일학교는 그 성격상 교회 밖의 운동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교육적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이 운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대중교육의 형태로 발전될 수 있었다.

1. 로버크 레익스¹⁾

레익스는 1736년 9월 14일 영국 글라스터(Gloucester)에서 태어났다. 그는 박애주의자였으며 주일학교운동의 창시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졌으며, 어머니의 이름은 Mary로, 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 Richard Drew는 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Gloucester Journal이라는 신문의 발행인 겸 인쇄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Timothy Raikes와 증조 할아버지 Robert Raikes 역시 목사였다. 레익스는 1767년 Anne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6녀를 두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졸업한 기록은 없다. 그는 사업가가 되는 것을 선호한 것 같고, 그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게 되었다.

레익스는 일찍부터 사회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주로 범죄와 감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²⁾ 그 당시 감옥은 비위생적이며 비도덕적인 범죄의 온상이 되어있었으므로 감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25년간이나 지속된 그의 노력에 대하여 실망감을 느꼈던 레익스는 악과 범죄와 부도덕과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지에 있다고 확신하고

1) 레익스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John Carroll Power, *The Rise and Progress of Sunday Schools. A Biography of Robert Raikes and William Fox* (New York: Sheldon & Company, 1863), 28-49를 참조하라.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하는 책들 중에는 그의 생년을 1935년으로 서술하는 책들이 더러 있다.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222; Kendig B. Cully, (e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550; Elmer L.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226.

2) 그의 감옥개혁의 대한 상세한 서술은 이규용, 『기독교교육역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9), 68-69.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 주일학교의 배경

주일학교가 태동되기 시작한 1780년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되었는데, 그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어린 아이들까지도 1주일에 6일을 하루 15시간씩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난한 노동자들과 어린이들은 주일이 되면 거리로 쫓아져 나와 난폭하게 행동하고 싸우며 쉽게 범죄에 빠져들었다. “사가(史家)들은 다 같이 이 시기에 영국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빠졌던 것을 말하고 있다. 문맹(文盲), 무종교, 부도덕, 이 모든 인생의 암흑면은 전 영국 국민을 휩싸고 있었다.”³⁾

우선 주일학교의 배경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도시화, 공장화, 인구집중화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농업, 섬유산업, 금속제조업 등에서 일어난 큰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대략 1760년에서 1850년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글라스터에는 농촌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 범죄와 악과 부도덕의 확산이 이 도시의 특징이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소위 상류사회는 음일방종(淫佚放縱)이 극도에 달하였고, 중산계급은 민중을 착취하는 것을 일삼았으며, 하층계급은 잔인무도(殘忍無道)로써 폭행과 살육(殺戮)을 자행하게 되었다... 영리(營利)에 눈 밝은 공장주(工

3) 이규용, 『기독교교육약사』, 62.

場主)인들이나 상인들은 국가에서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아무런 법규의 제정이 없음을 기회로 하여 이들을 노예같이 혹사(酷使)하였다.”⁴⁾

아이들은 주일이 되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어 거리를 방황하였다. 레익스는 어린이의 격한 놀이와 싸움, 거친 언어를 들으며 소위 ‘교육적 회심’을 체험하였고, 그는 사회 범죄의 원인이 무지와 게으름에 있다고 보고 어린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은 난폭하게 거리로 뛰쳐나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카버리(E. Cubberley)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휴식의 날이며 또한 제분소와 공장들이 문을 닫는 날인 주일에 어린이들은 거리로 달려 나가 그 날을 부도덕과 악행으로 보냈다. 영국의 농장지대에서 농부들은 청소년 공격자들의 약탈로부터 농장과 곡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일에 특별한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⁵⁾

주일학교운동의 배경이 된 그 당시의 교육의 상황을 보면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⁶⁾ 교육은 가정과 교회의 일로 인식되었으며 교회가 설립한 학교는 상류계층의 자녀들만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빈민자녀들은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팽배해

4) 이규용, 『기독교교육역사』, 62-63; 아동노동자들의 건강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은 1800년이 지나야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나, 그것도 비효율적이었다. cf. 조성국, “주일학교의 역사적 발전과 반성”, 『교회와 교육』185 (2008. 12), 106.

5) Elwood Cubberley, *The History of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48), 617.

6) 영국의 공교육은 산업혁명시기에 이르러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지원성격이 강하였다. 1870년의 초등교육법, 1918년의 피셔 교육법에 의해서 초등단계의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있었다.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읽지를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교육만으로 극복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으며, 이 때 주일학교는 큰 호응을 얻게 된 것이다.

3. 주일학교교육의 목적과 내용

레이크스는 어린이들의 모임이 가능한 주일에 학교를 개설하였고, 부인교사를 고용하고 장소 사용이 허락된 가정집에서 교육을 시작하였다.⁷⁾ 주일 아침 10-12시에 시작한 교육은 후에 오후 1-5시까지 연장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읽기, 쓰기, 산수 등의 일반교육적인 것이었고, 후에 찬송, 예배, 교리, 성경공부 등이 추가되었으며 생활훈련(손씻기, 세수하기, 머리빗기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강하였다.⁸⁾

레이크스는 어린이의 잠재가능성과 예방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시작하여 주일학교를 대중교육으로 발전시켰고,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사회교육 내지는 대중교육을 전개하였다. 주일학교는 처음에는 ‘교회 밖의 운동’으로 교회가 외면한 교육을 교회 밖에서 실천하였다. 3년간 주일학교를 실험한 레이크스는 이 운동이야말로 사회개선의 소망스러운 대안임을 확신하면서 1783년 자신이 만드는 신문에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였는데 그 영향력은 기대 이상이어서 주일학교를 영국과 유럽대륙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주일학교에 대한 반응과 성과

1783년 11월 3일에 그는 그의 신문에 그간의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사

7)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된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cf.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30.

8)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130-131.

를 게재 하였는데, 그는 그 일을 해됨이 없고 순수한 실험으로 설명하였다.⁹⁾

“도시와 시골에 사는 농부들과 다른 거주자들은 주간의 다른 어느 날 보다도 주일에 더 많은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이것은 주로 주일날 모든 숙박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허용된 젊은이들의 무법의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이 악을 치유하기 위하여 아주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채용되었으며, 또한 읽을 줄 아는 아이들에게는 교리문답을 가르쳤으며 교회로 인도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채택되어온 교구에서는 어린이들의 행동이 크게 교화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¹⁰⁾

이 짧은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신문들이 연이어서 이 사실을 보도함으로 레익스의 학교는 영국의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학교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공장주나 부유층은 어린이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요일 오전과 오후에 가르치는 것은 다른 날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린다고 비난하였으며, 심지어는 자기들의 선량한 일꾼들을 의식화하여 자신들이 처한 조건에 불만을 느끼게 하여 임금상승을 부채질한다고 비난하였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찬성하였으나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반대하기도 하였다. 교회 역시 이 운동에 관용적이지 못하였다. 국교회 성직자들은 평신도가 가르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교도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이 교회를 분열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9) K. Kenneth Meir, “Sunday School Movement,” in John M. Sutcliffe (ed.), *A Dictionary of Religious Education*, 333.

10)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Sunday School* (Weaton: Victor Books, 1980), 22.

으로 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주일학교운동은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호응을 받았으며 또한 이 운동은 유럽에 퍼져 스웨덴,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등으로 진출하였다. 윌리스에 의하면 주일학교의 성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1780년 초기에 레익스는 9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4개의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주일학교가 신문에 알려진 이후 4년간 25만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1811년 그가 죽었을 때는 40만명이 넘는 주일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레익스의 동상이 제막된 1831년에는 125만, 1835년에는 150만을 훨씬 능가하였는데, 이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교육이 유일한 교육 경험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자원봉사하던 교사의 수는 16만여 명이었으며, 이 숫자는 교사 1명 당 학생 10명이 못되는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었다. 맨체스터시의 어떤 주일학교에서는 120여명의 자원교사에 2, 700여명의 학생이 있었고, 그 학교의 교사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일학교 출신의 교사였다고 한다.

5. 영국에서의 주일학교의 평가

주일학교운동이 영국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윌리스는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¹²⁾

첫째, 주일학교운동은 보기 드물게 영적각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한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둘째, 주일학교운동은 사회의 모든 계급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자극하였다.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의 문제를

11)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28, 34.

12)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33-34.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주일학교운동은 상류층과 중류층에게 다른 계층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였으며 재정적인 지원을 감당하였다.

넷째, 주일학교운동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종교서적의 발간을 자극하였고, 이 결과 종교서적의 발행과 배포를 위한 조직들이 설립되었다.

다섯째, 주일학교운동은 성인교육의 열망을 일깨우고 자극하였다. 물론 그는 어린이 중심 사역을 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성인에게까지 향하였고, 1789년 경 웨일즈 지방에서는 성인사역이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사회변동 아래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아이들을 구제하려고 했던 자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분위기가 사회 속에 침투해 있었다. 게다가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는 1차적으로 3R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을 실시함으로 사람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였다.

둘째, 이 운동이 교직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었다는 것이 큰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창설자 레익스는 영국 국교회의 평신도였으며, 이 운동에 실질적인 협력을 준 사람들도 대부분이 평신도였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신학적인 논의나 조직제도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과 유연성이 있었다.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의 한계 내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소박한 기독교적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어린이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부모들의 변화와 지원은 큰 힘이 되었다.

셋째, 이미 레익스가 주일학교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존 웨슬리(1703-1791)나 조지 헛필드(1714-1770)의 부흥운동이 영국에 일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쳐야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웨슬리의 깊은 관심 중의 하나는 어린이에 대한 복음전도였다. 그는 어린이를 사랑하였고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 가지로 설교자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는데, 하나는 한 지역에 10명 혹은 그 이상의 어린이들이 모이면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모들에게 자녀교육 방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었다. 주일학교가 시작된 직후, 웨슬리는 지혜롭게도 주일학교를 감리교 구조 속에 포함시켰으며, 주일학교를 그들 조직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이 결과 주일학교는 감리교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¹³⁾

넷째, 주일학교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주로 주일학교연합회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윌리엄 폭스(William Fox)¹⁴⁾는 1785년 9월에 영국 주일학교진흥회(원래의 이름은 “The Society for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Sunday School in the Different Counties of England”였다.)를 조직하여 자금과 문서를 지원하였다. 이 단체는 거의 20년 동안 성경과 소책자를 공급하였고, 영국과 웨일즈의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보수를 지불하였다. 이 때 진흥회는 2,500개의 학교를 도왔으며, 25만권의 쓰기 책과 5만부 이상의 신약성경, 그리고 7천부의 성경책을 기증하였다.¹⁵⁾

13)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31-32.

14) 윌리엄 폭스는 레익스와 같은 날 태어났다. 그는 하층계층의 도덕적 부패와 육체적, 정신적 상황을 깨닫고 영국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또 그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활동가인 그는 자신의 비전에 동감하는 사람들을 모았으며,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조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폭스는 그의 사역 초기에 주일학교에 대해서 들었으며, 겸손과 지혜를 가진 폭스는 레익스의 주일학교와 경쟁하기 보다는 그와 연합하여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29-30.

15)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30.

1803년 런던주일학교연합회(London Sunday School Union)의 조직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유급교사제도는 무보수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체되었다.¹⁶⁾

Ⅲ. 미국에서의 주일학교

1. 주일학교의 배경과 시작

미국의 상황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독립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학교들이 폐쇄되었으며 교사의 부족과 재정 및 시설의 부족은 교육의 파산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국민의 도덕은 말할 수 없이 부패해지고 도처에 문맹자들이 넘치게 되었다.¹⁷⁾

무엇보다도 주일학교는 미국 의회에서 결의된 정교분리의 원칙(1787)에 따른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금지로 야기된 종교교육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였다. 국가가 일반교육만을 담당하면서 종교를 학교에서 몰아내자 교회는 종교교육에 대한 절박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영국과는 달리 주일학교가 더 이상 일반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없었고, 그 대신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을 강화해야할 상황적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같이 주일학교는 미국으로 전래되면서 그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교회는 주일학교를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당시 대각성운동 이후의 복음화 운동에 발맞추어 선교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주일학교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몇

16) 이규용, 『기독교교육약사』, 79.

17) 이규용, 『기독교교육약사』, 92.

가지 설이 있다.¹⁸⁾ 물론 그 이전에도 주일학교와 유사한 형태가 있었으나, 버지니아주의 동부해안에 위치한 Accomac County에 살던 한 농장 주인인 William Elliott이 그의 농장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1785년에 세웠다. 초기 기록에 의하면 이 주일학교가 미국 최초의 주일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 학교는 주일학교가 교회의 건물 안에서 시작할 1801년까지 엘리웃의 집에서 계속되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감리교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감리교파 사람들은 영국에서의 주일학교의 성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미국 감리교의 최초의 감독이었던 프란시스 에즈버리(Francis Asbury)는 요한 웨슬리로부터 주일학교에 대해 배웠다. 그는 미국에서 주일학교를 창설하는 일을 도왔는데, 그 학교는 버지니아주의 하노버 카운티에 있는 프란시스 크렌쇼(Francis Crenshaw)의 집에서 시작되었다(1786년). 이 학교의 목적은 노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연이어 1790년에 찰스톤(Charleston)에서 열린 감리교협의회는 주일학교를 승인하고, 예배당 안이나 예배당 근처에는 반드시 주일학교를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2. 주일학교와 주일학교연합회

주일학교연합회는 1809년 피츠버그에서, 1811년 필라델피아에서, 1816년 뉴욕과 보스턴 등지에서 도시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824년에는 미국 주일학교연맹(American Sunday School Union)이 결성되었다. 특히 1830년 미국주일학교연맹은 미시시피강 유역의 9개 주에 집중적인 주일학교 개척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1829년에서 1831년까지 2년간 7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2, 687개의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과업을 이루기도 했다. 미국 내의

18) cf.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36-37.

주일학교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1832년부터 전국주일학교대회가 조직되었고 연합활동은 그 힘을 더해갔다. 또한 1872년에 모인 convention은 통일공과의 형태를 채택하였으며 위원회를 인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고, 위원회는 1874년부터 소위 통일공과(Uniform Lessons)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¹⁹⁾

주일학교연합회의 기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일학교운동을 활성화하였다.

둘째, 주일학교운동을 개교회와 교단의 범위를 넘어 평신도를 주축으로 한 광범위한 운동이 되게 하였다.

셋째, 교재와 교육자료 등 문서활동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주일학교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다.

넷째, 주일학교연합회의 활동은 교사훈련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보다 조직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주일학교는 연합회 활동, 평신도 교사의 열정적인 헌신과 종교서적의 대량생산과 함께 Jack Seymour의 말대로 ‘주일학교의 승리의 시대’를 이루었다.²⁰⁾ 따라서 미국에서의 주일학교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되었고, 또한 교회교육의 명맥을 이어가는 일에 기여하였고, 그 성격은 교회적이며 선교적이었다.

19) cf. 이규용, 『기독교교육역사』, 95-121.

20) Jack L. Seymour, *From Sunday School to Church School*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3.

3. 주일학교의 성장과 침체

주일학교연합회의 확산은 곧 주일학교운동의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보고에 따르면 19세기 말경에 미국에는 약 1백만명의 주일학교 교사와 약 8백만명의 주일학교학생이 있었다. 1884년에는 8, 712, 551명의 주일학생이 보고되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1832년경에 미국주일학교연합회에 가입된 학교는 8, 000개였고 27개 주에 위치하였다. 1875년경에는 그 수가 36개주의 65, 000개로 늘어났다.²¹⁾

미국의 주일학교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주일학교운동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장이 둔화되다가 1916년에는 통계자료에서 분명한 감소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침체현상은 1946년까지 지속되었다. 계속적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등록 학생수가 1926-36년 사이에 12.6%나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²²⁾

이비(C. B. Eavey)는 주일학교의 침체 원인에 대해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²³⁾

첫째, 1903년 종교교육협회의 조직과 그 영향이 주일학교운동의 침체를 초래하였다. ‘종교교육협회’(REA, Religious Education Association)의 중요한 구성원들은 자유주의신학을 기초로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려 하였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교육의 영적인 속성이 상실되었으며, 전통적 의미의 복음전파를 위한 열정은 식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교회와 교파 내에 많은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1) Ken Garland, “주일학교운동(Sunday School Movement)”, in Michael Anthony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789.

22) C. H. Benson은 1943년 정부의 공식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266.

23)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266-269.

둘째, 세속주의의 영향이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는 세속주의 교육학을 추종하였다.

셋째, 일부 복음주의적 지도자들은 옛날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교육은 비효율적이었으며, 주일학교는 일반학교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넷째, 교회만능주의이다. 이비는 “진정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며, 인간적인 생각이나 조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수단은 사람이지만 교회주의적인 기계(ecclesiastical machinery)가 아니다.”²⁴⁾라고 말하였다.

윌리스는 주일학교의 쇠퇴 이유를 평신도의 지도력 상실과 성경교수에 대한 약화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²⁵⁾

첫째, 조직에 대한 강조가 주일학교 쇠퇴의 원인이었다. 1875년부터 1905년 사이에 11번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그 총회의 목적 중의 하나는 주일학교의 부서를 조직하고 그 체계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직에 있어서의 분명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는 강화되지 않았다. 주일학교운동의 조직화 시도는 여러 면에서 주일학교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그 하나가 평신도들이 주일학교운동의 조정력과 지도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둘째, 경험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 종교교육협의회는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을 촉진하였다. 이 결과 성경에 대한 강조점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건전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활용될 수 있는 다른 문헌들보다 별로 더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성경공부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하게

24)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269.

25)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75-78.

되었고, 결국 성경을 배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하여 김만형은 타당성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²⁶⁾

첫째는 192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의 교회교육의 많은 부분이 ‘양육’에 강조를 두었기 때문이다. 양육이 강조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주일학교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둘째는 자원봉사자의 감소이다. 자원봉사자의 감소는 곧 인력부족으로 인한 주일학교 사역의 쇠퇴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역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상의 제시된 근거들을 요약하면, 첫째, 진보적 신학사상으로 인한 성경과 전통적 복음전도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조직화의 과정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통제력과 인도력이 약화되었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감소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변한 종교교육협의회에서 분리된, 보수적 신학을 견지하였던 교파에서는 주일학교가 계속 성장하였고,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보이기도 하였다. 1947년을 기점으로 오랜 침체의 시기를 벗어나 주일학교운동은 일시적인 회복을 보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일학교는 다시 침체국면으로 들어갔으며, 교회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 - 옹호론자, 개혁론자, 폐지론자 - 이 대두되기도 하였다.²⁷⁾

4. 미국에서의 주일학교의 평가

미국에서의 주일학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김만형, 『New SS 혁신보고서』(서울: 에듀넥스트, 2011), 323.

27) cf.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146-154.

첫째, 주일학교는 미국에서 교회 안의 교육기관이 되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결국 주일학교는 교회의 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배경에는 정교분리원리에 의해 신앙교육이 학교에서 밀려나고 만 상황에서 교회가 선택한 대안이었다.

둘째, 주일학교운동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교회는 주일학교를 복음전파의 수단으로 이해하였고, 주일학교연합회는 복음전파를 위해 주일학교설립운동을 실행하여 낙후된 오지에 주일학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셋째, 주일학교운동의 발전을 위한 평신도 중심의 연합활동의 기여이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일학교에서도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주일학교는 교역자 중심, 교과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그 힘을 잃어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미국 주일학교의 역사를 살피면서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일을 일구어 낼 수 있는지를 스티븐 팩슨(Stephen Paxon: 1808-1881)은 잘 보여준다.²⁸⁾

IV. 주일학교운동의 평가와 과제

이제 주일학교의 출발과 역사적 전개를 기초로 오늘의 교회교육과 교육목회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8) 스티븐 팩슨은 거의 40년동안 말을 타고 다니며 1,300개 이상의 주일학교를 세웠고, 1,700개 이상의 주일학교를 후원하였다. 그가 25년간 타고 다니던 말의 이름은 Robert Raikes였다. 그 말이 죽자 그는 다음 말을 Robert Raikes, Jr. 라고 불렀다. 그의 흥미진진한 생애의 이야기는 Wesley R. Willis,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49-63; 이규용, 『기독교 교육약사』, 112-114.를 참고하라.

1. 파편화와 통합화

주일학교는 교회의 신앙교육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주일학교교육이 교회교육과 동일시됨으로 결국 전체 교회의 기능으로서 행해져야 할 교회교육을 스스로 축소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교회교육을 단지 주일학교라는 독립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기능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교육이 단지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기능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게 하였다는 것이다.²⁹⁾

교회교육은 교회전체의 기능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은 다른 신생교회의 공통된 모습과도 같이 성인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린이 중심의 주일학교가 가세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초기에 보여주었던 성인교육과 어린이 교육에 대한 균형 있는 모습은 점차로 어린이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었으며, 목회와 교육의 분리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어린이 중심의 교육과 성인 중심의 목회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교육에 대한 다양한 부분적 사고를 많이 보게 된다. 교육의 대상을 어린이로만 본다거나, 교육은 교육관이나 교실에서만 일어난다거나, 교육은 열성적인 평신도들의 일이라든가,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들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 자체가 교육과 더불어 존재하며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그 성격상 교육적인 것이다.

앞으로의 교회교육은 전 회중을 포괄하는 교회교육으로 회복되어야 할

29) “주일학교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유입되었으나 여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래서 부가적인 이질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교회에 붙어있는 한 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육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철저한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성국, “주일학교의 역사적 발전과 반성”, 115.

것이다. 종교개혁은 소위 평신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개신교는 목사의 교회가 되고 있으며, 평신도는 관망자나 소비자로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 교회는 평신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동력화함으로 교회건설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교육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명실공히 ‘회중의, 회중에 의한, 회중을 위한’ 교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교육목회’의 개념을 잠시 언급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교육목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목회와 교육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생각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의 대상은 성인이고, 교육의 대상은 아동이며, 목회는 목사가 하는 일이며, 교육은 평신도가 담당한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교육의 강조라든가, ‘어린이 목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육도 목사의 일이며, 목회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것은 이 두 개념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목회는 목회라는 개념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속성을 더욱 인식, 수용, 적용, 개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의미한다. 기독교교육은 그 자체가 평생교육적 속성을 가지며, 교회교육은 교회 전체의 기능으로 행해져야한다는 기본 원리가 오늘의 교육사역과 교육목회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자발성과 전문성

주일학교는 평신도인 레익스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 처음에는 교사들에게 약간의 보수가 지급되었으나 주일학교연합회의 활동이후에 무보수 자발성에 기초한 운동으로 정착되어갔다. 미국에서 역시 무보수 자발성에 기초한 운동이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일학교운동을 통하여 평신

도 교사의 헌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주일학교의 성장과 쇠퇴에 큰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가진 평신도 교사들의 수급과 교육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회교육의 전문화의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된다.

오늘의 교회교육 역시 평신도들의 자원봉사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기에, 이를 기초한 교사 수급에 많은 연구를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회의 일을 맡긴다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³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양육해서 그들이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³¹⁾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 중의 29%가 자신을 훈련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교인들의 다수가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주어진다 면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회는 자원봉사

30) 김만형은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워진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자가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르바이트 개념의 확장으로 사회가 늘 ‘시간은 돈’이라는 등식을 보편화하게 되었다. 2) 다양한 이유로 여성의 취업인구가 늘어난 점이다. 3) 급변하는 사회적 요청으로 많은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직장을 옮기는 등의 이유로 자주 이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4) 교사들의 연령층이 결혼, 직업의 선택 등 사건과 변화가 많기 때문에 봉사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이다. 5) 최근의 사람들은 장기적인 봉사보다는 집약적으로 하는 봉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6) 전에는 봉사하면서 배우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성경공부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7) ‘나 중심’의 사회 분위기이다. 8) 봉사에 대한 신학의 부재이다. 9)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10) ‘누군가 하겠지’하는 생각으로 다른 이에게 미루는 경향이다. 11)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만형, 『New SS 혁신보고서』, 324-330.

31) 김만형, 『New SS 혁신보고서』, 333.

자들이 그들의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³²⁾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가진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교회교육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 동시에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교육의 전문화의 과제이다. 이미 주일학교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주일학교연합회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는 교사교육에 있었다. 최근에는 보다 전문적인 제도 속에서 교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사의 전문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전문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에 있다. 그것은 일선 교회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역자 그룹과 부서장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교회는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더욱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신교단이 제47회 총회(1997년)에서 ‘교육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통과, 제정한 일은 교회교육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안을 해왔던 연구자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³³⁾ 1993년 봄에 열렸던 교단 발전연구위원회 주최 ‘교회교육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공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총회는 곧 이 보고를 받고 교육사 제도를 두기로 결의한 바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지내오다가 4년만에 규정의 통과를 보게 된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교육사는 “안수 받지 않은 교회교육 전담사역자로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개 교회의 교역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교회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쓴다.”고 규정함으로써 교회교육의 전담사역자인 교육사의 개념을 잘 규정해 주고 있다.³⁴⁾

32) 김만형, 『New SS 혁신보고서』, 333-334.

33) 강용원, “교회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안”, 『교회교육』 86 (1988): 22-28.

교육사 제도는 교회교육의 전문화라는 과제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진지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교회교육의 과제는 어린이나 일부 성장하는 세대에 그 초점이 모아져서 교회에 속한 모든 회중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미비하였고, 그 책임도 거의가 교회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한 ‘교육전도사’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로 일반교육을 능가하던 교회교육은 그 질적 낙후를 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면이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일은 봉사직이라는 통념 때문에, 교회교육의 전문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목회자 양성(신학교육) 역시 전문화 되어 있지 않아 교육에 관한 한 목회자들은 부담감을 갖게 되었으며, 목회자들이 갖는 업무의 과중성 역시 교육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교육 전문가들을 양성, 고용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대우와 책임을 주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교회가 교역자 이외에 급료를 주면서 고용하는 경우는 사무직과 관리직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평신도 전문가(교육, 상담, 행정, 경영, 음악, 선교 등)들이 교회에 고용되어, 교회의 각 부문에서 사역함으로써 교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사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교회교육의 전문화와 아울러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34) 규정의 중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및 신학과 졸업자로 추가로 정해진 16학점(기독교교육과 졸업생인 경우는 신학과목, 신학과 졸업생인 경우는 기독교교육학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의 구두시험을 통과하면 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2) 신학대학원 및 기독교교육학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정해진 추가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두시험을 거쳐 교육전문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3) 교육사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재교육을 필한 경우 자격시험을 거쳐 교육전문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4) 교육사의 시취와 관리는 총회교육위원회가 담당하며, 직무상 당회의 관할하에 있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고, 35) 여러 교단이 교육사 제도를 통과시킨 것도 벌써 오래된 일이다.36)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교육사 제도는 거의 사문화되고 있으며 그 실행도 아주 미미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이 실행가능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관련 기관의 실천의지가 요청되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교육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요청되는 것이다. 교회교육 전문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교육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 질 것이고, 그들의 수준 역시 향상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교육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실제로 중고등부를 지도할 교역자가 있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사만 확보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사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교육의 영역은 넓고, 그 과제 역시 광범위하다. 영아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각 연령층에 대한 교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각종 평생도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를 훈련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제는 주일에만 이루어

35) 교육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시오. 오인탁, “교육사 제도의 교회적 요청과 이론적 근거”, 『교육교회』 85 (1983): 349-354; 강희천, “교육목회와 ‘교육사’ 제도”, 『연신원 목회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0 (1990): 289-297; 김재은, “교육사 제도에 대한 소고”, 『신학과 세계』 21 (1990): 236-261; 이은규, “기독교교육(과)의 방향과 비전: 교육사 제도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2 (1997): 187-203; 고용수, “교육목회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교회』 261 (1998): 2-7; 박봉수, “한국목회 상황에서 본 교육사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교육교회』 261 (1998): 8-12; 이락재, “한미감리교회의 교육사 제도 비교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1998); 옥창원, “교회 내 교회교육 전문가 제도 정착과 수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9).

36) 예를들면 기감(1989), 통합(1995), 고신(1997) 등이다.

지는 교회교육이 아니라, 평일에도 주야로 교회의 모든 자원들이 가동되어야 한다. 교육사는 유치원이나 선교원, 어린이집, 방과후에 어린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일, 저녁 시간을 이용한 중고등학생들의 공부방 및 특별교육, 주간의 각종 성경공부반, 성인을 위한 각종 그룹활동의 개발, 주부대학, 노인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육사는 담임목사의 교육적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도와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사는 담임목사와 교역자 팀의 귀한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사 제도의 도입은 앞서 가는 교단의 모습을 잘 보여준 쾌거였다. 앞서 가는 교단이란 차세대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진 교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다소 어색함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단의 미래와 교회교육의 비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한 가치 있는 선택이다.

3. 폐쇄성과 개방성

주일학교운동은 처음에는 교회 밖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미국에서는 전면적으로 교회의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일학교교육이 교회안의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신앙교육의 현장들과의 유대를 더욱 의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신앙이란 인간의 삶 전체에 관여하는 것이기에,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그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의 기독교교육은 학교교육과 주일학교 중심의 교회교육이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선교학교(mission school)를 통한 기독교교육은 초창기에는 매우 활발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제재를 받아

야 했으며, 해방이후 특히 1960년대부터는 정부주도적인 교육에 의해서 더욱 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주일학교를 중심한 교회교육 중심의 기독교교육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서 도출되는 미래적 과제는 기독교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중심의 기독교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보다 깊은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가정교육에 대한 관심, 기독교사회교육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이 현장들을 통합시키는 구체적인 연구와 작업들이 따라야 한다.³⁷⁾

기독교교육의 현장인 교회, 학교, 가정은 각각의 구조에 있어서 독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교육적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공동체로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훈련에 주력한다. 동시에 교회는 가정교육을 격려하며 기독교학교를 후원한다. 가정은 혈연이라는 생물학적 차원에 근거하며 부모와 자녀가 그 중심을 이루며 사랑에 기초한 신앙적, 윤리적 차원에 그 핵심 기능을 갖는다. 또한 학교와 교회를 비롯한 다른 전문기관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기독교학교는 개혁교회에서는 부모에 의해 세워진 신앙에 기초한 학습공동체로 교회는 이를 후원한다.³⁸⁾ 그러므로 교회와 학교와 가정은 그 독특한 성격에 충실하면서도 상호 연계, 통합됨으로 효과적인 교육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덧붙여,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사회봉사적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선교 초창기에 한국사회에 미친 기독교사회봉사기관의 영향력은 아주 큰 것이었다. 최초의 병원들, 복지시설들, 대민 봉사기관 들은 거의가 다 교회의 주도하에 시작되고 유지되었다. 그러나 점점 이 모든 기관들이

37) 강용원, “한국의 기독교교육”, 오인탁 외, 『기독교교육사』(서울: 기독교, 2008), 341.

38)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교육현장에 대한 논의는 조성국, 『기독교교육학의 길』(부산: 기독교사상연구소, 2010)을 참조하라.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거나, 그 봉사의 질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비기독교적인 사설단체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독교사회교육은 앞으로 기독교교육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4. 주일학교의 명칭문제

이제 마지막 과제로 주일학교의 명칭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미 60년대에는 ‘주일학교’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학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용어의 논의는 그 후 1986년에 은준관 교수가 “주일교회학교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고용수 교수는 1988년에 “교회학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후 예장 통합측은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합동측은 ‘주일학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교단이, ‘주일학교’는 보수적 색채가 강한 교단이 사용한다는 구분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는 ‘교회학교’라는 명칭이 일반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이제 고신교단이 사용해온 주일학교의 명칭에 대해서 지나온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고신교단은 초창기부터 교회의 교육기관을 “(유년)주일학교”로 불렀으나(제5회 총회, 1956),⁴⁰⁾ 1976년에 모인 제26회 총회는 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종래의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개칭”하도록 결의하였다.⁴¹⁾ 그리고 교회학교 체제를 영아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로 정비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39) cf. 오인탁, “한국기독교교육학 연구사”, 『기독교교육논총』 8 (2002), 70f.

40)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회록 (1961), 66.

41)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회록 (1977), 40.

주일학교에 국한해서 생각하던 교회교육의 대상을 전교인으로 확대하는 시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0회 총회(1980)는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다시 ‘주일학교’로 환원하기로 결의하였다.⁴²⁾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 9월 대구 서교회당에서 모인 제29회 총회에서 부산노회는 이우서를 첨부하여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주일학교’로 환원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때 이 안건은 교회교육부로 넘어가고 교회교육부에서는 현행대로 ‘교회학교’ 명칭을 사용할 것을 고수하였다. 또한 주일학교연합회 역시 같은 건의를 한바 있다.⁴³⁾ 이 결과 1980년 9월 제30회 총회에서는 ‘교회학교’를 ‘주일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때부터 주일학교는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장년부로 표기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헌법의 예배지침 제32조에 의하면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의 기관은 기독교의 전통과 국제관례에 따라 주일학교로 그 명칭을 통일한다.”고 되어있으며 제36조에는 주일학교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성하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와 학생신앙운동(SFC/Student for Christ) 등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⁴⁴⁾

연구자는 ‘주일학교’라는 명칭 보다는 ‘교회학교’라는 명칭이 교회교육을 포괄하는 명칭이라고 본다. 고신교단의 기록을 보면 한때 교회학교로 명칭을 바꾼 후에, 다시 주일학교로 환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회학교라는 용어

4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회록 (1982), 134.

43) 전국주일학교연합회의 건의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의 보수와 개혁주의 주체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고려파가 신신학 계통교회를 모방하여 ‘교회학교’로 이루어진 명칭을 ‘주일학교’로 환원하여 우리교단의 제2세 교육을 올바른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놓아야 하겠다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일학교로 명칭을 환원해야 할 이유를 별지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어 전통적인 ‘주일학교’로 기필 환원하여 주실 일입니다.”

44)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2011), 248-249.

가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다. 1903년에 만들어진 종교교육협의회가 이 용어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는 진보적이며 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는데, 그들은 ‘주일학교’라는 이름 대신에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이다.⁴⁵⁾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진보주의자들이 사용한 용어이기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어색하다.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도 모두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또한 ‘기독교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교회학교’라는 용어를 선호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단지 교회의 부속기관으로 존재하는 ‘주일학교’의 개념을 넘어서, 교회와 교육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물론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통해서 교회와 교육의 유기적 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그런 명칭변경에 숨어있는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을 담고 있다면 더욱 의미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어 그 자체보다도 용어에 더욱 깊은 의미를 담아나가는 일이다.

그러면 ‘주일학교’라는 용어는 보수적인 용어인가? 원래 주일학교는 ‘교회 밖의 운동’이었으며 초교파적인 운동이었으며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주일학교’라는 용어만이 보수적인 용어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주일학교라는 명칭보다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일학교는 주일에 모이는 학교라는 명칭으로 그 속성상 부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45)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35.

둘째, 주일학교는 전통적으로 어린이 중심의 교육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중고등부와 성인부(청장년부, 중년부, 노년부)까지 포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셋째, 교회학교라는 명칭은 ‘교회 전체의 기능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교회와 교육의 유기적인 관계 정립으로 나가는 적절한 용어가 될 것이다.

주일학교는 교회교육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일학교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학교로 정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 발전되는 과정을 정리하면서, 주일학교운동이 오늘의 교육사역과 교육목회에 제기하는 몇 가지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점은 교회교육은 교회 전체의 기능으로 행해질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육을 그 본질적 요소로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미래의 교회교육을 구상하고 전개해 나가야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강용원, “교회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안”, 『교회교육』 86 (1988): 22-28.
- 강용원, “한국의 기독교교육”, 오인택 외, 『기독교교육사』, 서울: 기독한교, 2008): 309-344.
- 강희천, “교육목회와 ‘교육사’ 제도”, 『연신원 목회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0 (1990): 289-297.
- 고용수, “교육목회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교회』 261 (1998): 2-7.
- 김만형, 『New SS 혁신보고서』, 서울: 에듀넥스트, 2011.
- 김재은, “교육사 제도에 대한 소고”, 『신학과 세계』 21 (1990): 236-261.
- 박봉수, “한국교회 상황에서 본 교육사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교육교회』 261 (1998): 8-12.
- 오인택, “교육사 제도의 교회적 요청과 이론적 근거”, 『교육교회』 85 (1983): 349-354.
- 오인택, “한국기독교교육학 연구사”, 『기독교교육논총』 8 (2002): 43-127.
- 옥창원, “교회 내 교회교육 전문가 제도 정착과 수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9.
-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이규용, 『기독교교육약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9.
- 이락재, “한미감리교회의 교육사 제도 비교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1998.
- 이은규, “기독교교육(과)의 방향과 비전: 교육사 제도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신학대 학원 논문집』 2 (1997): 187-203.
- 조성국, 『기독교교육학의 길』, 부산: 기독교사상연구소, 2010.
- 조성국, “주일학교의 역사적 발전과 반성”, 『교회와 교육』 185 (2008. 12): 104-116.

- Cubberley, Elwood, *The History of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48.
- Cully, Kendig B. (e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 Garland, Ken, “주일학교운동(Sunday School Movement)”, in Michael Anthony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역, 『기독교교육학사전』, 서울: CLC, 2010: 788-790.
- Meir, K. Kenneth, “Sunday School Movement, ” in John M. Sutcliffe (ed.), *A Dictionary of Religious Education*: 333-334.
- Power, John Carroll, *The Rise and Progress of Sunday Schools. A Biography of Robert Raikes and William Fox*, New York: Sheldon & Company, 1863.
- Seymour, Jack L., *From Sunday School to Church School*,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 Towns, Elmer L.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 Willis, Wesley R., *200 Years - And Still Accounting: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Sunday School*, Weaton: Victor Books, 1980.